

6·13 지방선거 누가 뭐나 - (5) 광산구청장

‘현역 불출마’... 치열한 경쟁 후보군 10여명 “내가 적임자”

민주당 경선 변수... 민 청장 조직 바통터치 누가? 낮은 연령대 유권자 선택 따라 ‘희비’ 엇갈릴 듯 행정·세무공직자·조합장·시민단체 경력 다채

광주 광산구는 민형배 전 청장이 광주시장 도전을 일찌감치 선언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거판을 예고하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자전 타전으로 여야 후보 10여명이 표밭을 다지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김삼호 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성수 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의장, 김형수 광산구평화의소녀상시민모임 공동대표, 임한필 김대중평화캠프조직위 사무처장,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윤난실 전 광주시의원 등이 경선에 대비해 바닥민심을 다지고 있다.

지난 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장성수 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최근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광주 송정역세권 개발 전면 재조정, 광산교육지원청 설치 등을 주요 정책을 내놓으며, 행정경험을 내세워 지역조직을 탄탄히 다지며 대항마로 주목 받고 있다. 광주시 대변인과 서구 총무국장 등 공직 30년 동안 쌓아 온 행정경험이 최대 강점이다.

김삼호 전 이사장은 민형배 전 청장과 인연을 앞세워 세를 불리고 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성과 등 ‘광산형 일자리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전문인사로 분류된다.

광주시의회 의장과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을 지낸 윤봉근 전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에 도전하는 등 오래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출마제비를 다지고 있다. 윤 전 의장은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광주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입지를 다져 왔다.

최근 출마기념회를 통해 출마를 선언한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지역 화폐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바닥을 민심을 훑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조달을 하는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30년 가까이 활동한 경험 이 큰 장점이다.

김형수 광산구평화의 소녀상시민모임 공동대표도 최근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다. 김 공동대표는 농민운동가로, 수세싸움의 승리, 시민운동으로 87년 민주헌법쟁취승리, 통일축전의 기쁨마련, 전투비행장 소음피해투쟁 등 지역민들의 민원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사)광산구자원봉사센터 이사로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잡종은 광산포럼’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제안·기획하



김영록

김삼호

김형수

윤난실



윤봉근

임한필

장성수

이정현

고 범시민운동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다.

임한필 사무처장은 광산구 토박이자 젊음을 무기로 한 40대 청년정치인으로, 지역시민단체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현안에 적극 나서며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지난 총선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임 사무처장은 문화예술 전문가로, 광산구의 문화산업 비전을 제시해 오고 있으며, 중앙정치 인맥도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유일한 여성후보인 윤난실 전 시의원은 최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농성현장 등을 방문,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옛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광주시의회 이정현 운영위원장과 한 차례 구청장 도전에 나섰던 서중진 전 광산부구청장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농협 조합장 출신인 이정현 시의원도 일찌감치 구청장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으며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민원을 최우선으로 둔 ‘생활밀착형 의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전 부청장은 공직생활 경험 등 지역 내 기반을 바탕으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산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소속 민 전 청장의 조직력 등이 누구에게 바통터치 될 것인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의 힘이 후보군들에 어떻게 작용할 지와 광산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권자 연령대가 낮은 이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기철 기자



6·13 지방선거 레이다



D-90



이용섭, ‘GREAT 광주, 도시재생 5대 공약’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광주를 바꾸는 ‘GREAT 광주, 도시재생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는 전체 읍면동의 70% 이상이 쇠퇴지역으로 분류되고, 재개발·재건축 44개 지역 중 28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구도심 주거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후화된 도심과 산업 단지를 사람·문화·일자리 중심으로 재창조해 광주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도시재생 기본방향으로 ‘GREAT 광주’를 내걸었다.



강기정 “MB,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MB 저격수’로 불리던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직폐의 최고정점인 MB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내고 “포도라인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보는 국민은 참담한 심정이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말을 아낄 것이야

니라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지막 한 조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0억원대 뇌물 및 다스실소유주 등 의혹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영호 “금호타이어 파업, 정부-시 중재” 촉구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금호타이어 노조파업과 관련, 정부와 광주시가 채권단과 노사간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채권단과 정부는 더블스타로의 해외매각 외에는 답이

없다고만 하고 있다”며 “회사가 법정관리로 가거나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시는 파업중단과 노사간 자구안 제출을 설득해야 하며, 정부는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민이와 AI톡’ 정책서비스 첫선

민형배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인공지능(AI) 방식을 이용한 대화형 정책서비스 ‘민이와 AI톡(min.aitalk.kr)’ 서비스를 선보였다. 인공지능 대화형 정책서비스는 민후보와 시민들간 대화를 기계적으로 학습해 타깃층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민이 AI톡’은 연령과 지역에 맞춰 시민들에게 익숙한 카카오톡 채팅형식으로 정책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민 예비후보측 한 관계자는 “후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SNS 킬러콘텐츠 중의 하나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문화·산업·기술 융복합 일자리 창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 문화와 산업·기술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 곳은 광주의 미래의 비전인 문화콘텐츠밸리로 조성되는 문화융합형 4차 산업혁명 핵심거점이다”며 “진흥원을 축으로 해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ICT(정보통신기술)와 문화콘텐츠산업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 ‘경제와 일자리 상생’ 거점으로 거듭나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송갑석 “MB,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송갑석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검찰 출석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B 집권시절의 대한민국은 소통부재 시대, 혐치와 도덕성 상실의 시대였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

당의 ‘정치보복’ 논평에 대해서는 “이명박근혜 집권 9년 동안 민주주의 파괴, 각종 권력비리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유한국당 측이 정치보복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조기철 기자



송형곤, ‘고흥은 어머니다’ 출판기념회 성료

고흥군수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송형곤 전남도위원의 자전 에세이 ‘고흥은 어머니다’ 출판기념회가 성료됐다. 지난 13일 고흥 군민회관에서 열린 송 의원의 출판기념회는 이계호·송영길 의원, 권옥 전남도의회 부의장, 지역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송 의원은 “어머니로 상징되는 따뜻한 내 고흥 고흥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토박이로서 고흥발전에 대한 염원을 저서에 담았다”며 “변혁과 변영을 이끌어 내고 흥의 밝은 미래를 향한 디딤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김순빈, 여수시장 출마... “해안도로 건설”

김순빈 여수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중앙동 이순신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의 꿈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여수시 통합정사를 만들고 대한학교·자유학기제에 따른 특수학교를 세워 인재양성에 힘쓰겠다”면서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특성을 살려 해안

도로 건설과 차별화된 중소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 브리핑룸이 아닌 야외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수시에서 하면 공무원들이 어수선해지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민주, 한국 GM 협력업체 간담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국 GM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깜깜이 선거’

후보 난립 속 선거구 획정 지연에 발만 ‘등등’

6·13지방선거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의원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직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3개 구청장 선거에서 후보 난립 속에 인지도 부족으로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두텁고 5개구 기초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속을 태우고 있다. 기초의원들의 경우 3-4인 선거구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파행을 빚으면서 후보자 자격심사는 물론 예비후보 등록, 본격 선거운동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난란이 된 선거구는 주로 광산구에 몰려 있다. ‘마’ 선거구(수완) 3석을 2석으로 줄이고 ‘다’ 선거구(침탄1·2, 비야, 임곡, 하남) 3석을 4석으로 늘리고, ‘가’ 선거구(송정1·2, 도산, 동곡, 어룡, 평동, 분량, 삼도) 4석을 2개의 2인

선거구로 재편하자는 수정의견이 나오면서 설전이 오갔고, 의회는 기약없이 산회된 상태다. 인구와 동수 비율을 넉넉히 반영하고, 8개 동이 몰린 곳은 2개로 쪼개자는 의견에 대해 4인 선거구를 2대 2로 쪼개

는 구태정치가 부활하고 있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원포인트 의회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하고 있다. 회의규칙상 상임위의 의결 후 심사보고서가 없이는 본회의를 소집하거나 의장직권 상정이 어려워 상임위가 계속파행을 겪을 경우 선거구 획정은 법정 의결시한인 이달 21일을 넘겨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출마자 적격심사와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모두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연쇄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기철 기자